93 문학계를 보다

다양한 시도로 기존의 한계성 극복

1993년은 좋의 해였으며 문학사 속에서는 변화와 혼란의 해이다.

근대 서구문화가 유입되어 여러사조가 뒤섞여 발전을 해온 한국현대문학은 100년이 조금 넘은 역사를 지녔다. 그 기간은 문학에 대한 충분한 실험과 시도를 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 특성에 걸맞는 문학의 사회적 위치와 그 역할을 하는데 무리가 없었다.

이제껏 이념의 잣대가 되어 왔던 동구권 붕괴와 문민정부가 출범한 국내의 양상으로 한동안 우리 문단을 지배해왔던 참여·민중문학이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과 함께 급속하게 쇠퇴한 실정이다.

또한 이데올로기의 부재를 채울만한 시도는 무성하나 실속, 감동, 공지, 지식, 교훈은 있으나 고통이 없는 상업주의 문학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20C초 서구의 영화산업이 번성할 시기에 '문자문화의 위기가 도래했다'며 문화에 있어서 문학의 위치가 영상매체에 뺏길거라는 우려가 많았다.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걱정을 하는 실정으로 TV광고에 줄기차게 나가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을 보면 과언도 아니다.

대중문화와 문학간의 어려움은 대중문화가 유입될 때 문화수용층이 두껍고 다양하면 장·단점을 걸러내는 필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미처 성숙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90년대의 대중문화와 고급문화의 생산과 수용에 있어서의 93년 한해는 커다란 전환점이 되는 시기였다.

오늘날 '문학의 위기'를 위에 언급한 방향성의 부재, 상업성의 만연, 대중문화의 무분별한 유입등으로 인한 문학계의 위축들을 들고 있는데, 또 다른 관점이 있어서 눈길을 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권위자인 김욱동교수는 자신의 '문학 위기론'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으로 비유될 수 있는 문학 안에서의 탈 장르 또는 장르확산현상이다"

또한 그는 '기존문학이 가지고 있던 이데올로기의 부정이 '수정문학의 대두'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93년 한해의 소득은 장르 확산으로 인한 문학의 풍부화와 수정주의 문학으로 인한 기존 문학 한계의 극복 등이다.

순수문학과 참여문학을 구분하여 대립적인 구도하에 논의하는 일을 거의 볼 수 없었고 이는 시대착오적인 사고이다.

리얼리즘 이론의 평론가 백낙청교수는 90년대 민족문학의 과제로 '개급성'의 '세계성'과 '대중성'을 지목했다는 사실도 리얼리즘 문학의 변모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최수철의 '이상문학상' 신경숙의 '한국일보 문학상'수상은 변화된 정치·사회적 모습이 문학상 시상에도 반영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문학이다, 순수문학이다. 각 입장만을 고수하는 양극단주의에게 다소 혼란스러운 용통성을 불어 넣어 준 93년은 역사의 경험으로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변증법적 발전의 기회로 여겨진다.

인간의 내면세계와 존재문제를 주제로 다루는 작가가 늘어났으며 어느 누구도 공기와 물을 떠나 살진 못하듯 자신의 처한 사회적, 정치적 상황을 완전히 배제하고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극히 내부적이고 개인적인 글일 지라도 자아성찰중에 잠잠히 비춰지는 사회의 모습이 투영되었기 마련이다.

소설에 있어서 주된 조짐은 진보문학에서도 내면성찰을 위주로 한다면가 김하기의 '항로 없는 비행'등의 성장소설의 활성화이다.

성장소설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김영현의 '봇사랑'은 90년대를 낳은 80년대를 장사지내고 그 시대의 열정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김인숙의 '칼날과 사랑'은 전교조를 다루고 있으나 내면적 아닌 역사속에 휩쓸려 버린 온갖 사람들의 생활 관습에 대한 재구성이 뛰어나며 역·영웅주의를 거부하여 문제의 현실감이 두드러진 작품이다.

관촌수필의 맥을 잇는 이문구의 '유자소전(兪子小傳)'은 만해

김영현

김욱동

김인숙

구효서

내면성찰 위주의 성장소설 많아

'문학위기론' 희망적 해석 가능

이청준, 박완서, 윤후명등이 중견작가들의 꾸준한 작품활동도 보였고, 젊은 작가로는 '풍금이 있던자리'로 섬세하나 무서운 돌풍을 일으킨 신경숙 등이 있다.

여성 문제를 다룬 공지영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대학을 나온 세여성들의 신데렐라 콤플렉스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경자의 '혼자 눈뜨는 아침'은 여성적 자아의 주체화를 다루었다.

또한 시에 있어서 80년대 시문학의 정신을 끌어 안으면서도 과거의 정신과 시어법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연대의 역사적 전망을 모색함려는 것이 90년대의 과제일 것이다.

시의 경향은 서정시가 성하고 참여시가 쇠조했으며, 소설에서 당찬 신인의 역량이 많았던 것에 비해 신인이 적었다. 김춘수·서정주·조병화·구상 등의 원로 시인과 60대의 고은·성찬경, 50대의 신경림·황동규·오규원·오세영·이승훈등의 꾸준한 창작열이 보였다.

이중 김춘수의 '서서 잠자는 숲'은 극단적인 시에 대한 고집에서부터 출발하여 무의미의 시, 언작사. 현재의 산문시로 넘어온 그의 경향에서 산문시에 해당되는 단계로서 리얼리즘과 반리얼리즘, 물리세계와 심리세계의 화학적 성질이 섞인 배합과 대립의 지양을 보인다.

〈이유경 記者〉

□새로 나온 책

김하기 지음 '항로 없는 비행'

역사에서 현실로의 복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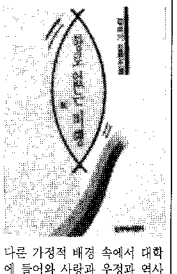
소설집 '완전한 만남'에서 미전향 장기수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 문단과 사회에 충격을 던져주었던 젊은 작가 김하기씨가 3년간의 고투 끝에 신작 '항로 없는 비행'을 출간했다.

서로 다른 성장배경을 가진 다양한 인물구상이 등장하여 학생운동권의 세대교체와 좌전등 투쟁양상, 해방직후에서 6.25로 이어지는 이데올로기 대립투쟁기의 부모세대의 비극적 인연과 역사의 재발김 등을 독특하게 조명하면서 90년대의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젊은 영혼들이 자신의 인생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을 풋풋하게 그려내고 있다.

때묻는 락과 디스코와 방탕에 젖은 젊은 군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추리기법으로 편지에 얽힌 의문을 긴박하게 추적하기도 하며, 때로는 진정과 시위대의 치열한 접전과 작전을 그려내고, 중구금교도소의 화석이 된 장기수 세계로 안내하기도 하며, 운동권을 비판하는 다양한 논리와 봉건적 세계관에 젖은 인물, 카오스·퍼지이론 등 초현대적 이론, 가수 정태춘의 대학공연을 둘러싼 찬반 논쟁들을 다양하게 동원하여 흥미롭게 펼쳐놓았다.

이 소설의 큰 미덕은 장기수의 역사에서 젊은이의 현실로 복귀한 작가의 성공적 귀환에 있다. 부산의 대학을 주요무대로 설정한 이 소설에는 다양한 운동권 학생이 나타난다. 80년대에 싹튼 혁명적 학생운동의 맹아와 고조, 그리고 90년대의 새로운 조정 국면들이 3세대의 인물군을 통해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있다.

학생운동사의 흥미로운 재관도 이 소설이 제공하는 유익한 정보지만, 그 진정한 매력은 '항로 없는 비행'은 뛰어난 성장소설 이라는 것이다. 서로



다른 가정적 배경 속에서 대학에 들어와 사랑과 우정과 역사에 눈뜬는 젊은 영혼의 방황을 치밀한 필치로 그려냄으로써 우리나라 성장소설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것이다.

(창작과비평사 값 각권 5천원)

그대에게로 가는 편지 5

이 영 춘

〈제10회 경희문학상 수상자〉

멀고 아득한 나라에
내 속눈섭 같은
별 하나 있었습니다.
초록 빛 대낮에도 슬픔이
강물처럼 흐르는
내 어둔 영혼속으로 스며드는
작은 별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가을 잎새 사이로 흐르는
바람처럼

서로의 눈빛속에 잠시 머물다가
돌아서는 날 아침이면
추억처럼 아름다운 풍경들이
아픈 시간위에 물방울로 흐릅니다.
내가 만약 구름으로 떠돌다가
작은 빗방울이 되어
어느 섬에 이르면
그 때 그대 잊을 수 있을 지
아득합니다.

인터뷰 경희문학상 수상 이영춘 동문

"문학 하려면 뚜렷한 주관 있어야"

◇여성 특유의 일상소재로 사회의식을 표현하는 여류시인 이영춘씨

중견 여류시인인 이영춘(52)씨가 '제10회 경희 문학상'을 받았다.

'경희 문인회'는 92년 12월부터 93년 11월까지의 작품집과 문학집을 대상으로 '제10회 경희 문학상'을 선정하여 지난 22일 오후 6시 른에진흥원 강당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수상자인 시인 이영춘씨는 우리학교 국문과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강원일보 기자를 역임 했으며 현재 강원도 교육청 교육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다.

1976년 제19회 '월간문학' 신인 작품상으로 등단, 제3회 '윤동주 문학상' 수상(1987년) 제29회 '강원도 문화상' (문학부문) 수상 (1987)에 이어 수상작품 시 특집 '관계 1~15'로 제10회 경희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이 농문의 시는 여성 특유의 일상적인 소재에 초점을 잘 맞추어 그 위에 사회 의식의 시각을 더해 부조리와 같등, 허무의식과 존재론, 반문과 자답의 형상화에 성공하여, 시정적 바탕위에 사회 의식을 이미지를 통해 형상화 시켰다는 심사평을 받았다.

시집으로는 '증전에서'(1978) '시지프스의 돌'(1980) '귀 하나만 열어놓고'(1987) '네 살던 날의 흔적'(1989) '칠 하나로 남기고 싶다'(1990)를 발표하고 있다.

"등단한 후 꾸준한 활동속에서 작품을 인정 받은것 같습니다. 더 좋은 작품을 쓰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지요." 수상자의 간단한 소감이다.

지방에서 문학 활동을 하고 있는 이 동문은 "중앙 문화권에서 떨어져 소외 받기 쉬운 지방에서 외로운 투쟁을 하며 계속해서 중앙 문단에 작품을 발표해 왔다"며 문화의 중앙집중을 힐책하기도 했다.

"문학을 함에 있어서는 뚜렷한 목표와 사상, 주관이 필요합니다 확고한 자기 정립후에 문단에 등단하도록 문학 지망생에게도 권하고 싶습니다" 문학의 선두그룹의 한 사람이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항상 노력한다는 이 동문은 후배 문학도들에게 말한다.

"저를 통해 나온 글은 저의 분신입니다. 문학과 함께 호흡하면서 살아왔고 진실된 한 마디를 쏘드록 노력할 겁니다" 중앙에서 벗어난 어느 외진 곳에서 열정을 다해 문학에 심취해 있는 한 여인이 있다는걸 기억해 달라는 이 동문의 앞으로의 왕성한 문학활동이 기대된다.

(진지현 記者)

문화단신

임철우 '섬…'영화화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영화 '그 섬에 가고 싶다'가 사람들 사이의 상징적인 섬을 전라도의 외딴 특정 섬으로 옮겨놓고 '가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망 속에서 현재의 우리가 잃어 가고 있는 아름다운 옛정서를 환기시켜 주고있다. (감독 : 박광수 원작 : 임철우)

이 작품은 과거의 오류를 새삼스레 들추게 되는 한 시인(안성기분)의 뜨거운 가슴과 지난날의 실수를 참회하는 한 문제인물(문성근분)의 격절한 눈물이 만나고 그 속에서 각자의 또렷한 생존방식을 지닌 네 여인의 삶이 부각되어 나타난다. 보다 내면적이며 인간과 사회와의 본질에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호암아트홀 12월 25일 개봉작

현장 '노동의 새벽'공연

극단 '현장'이 94년도 첫공연으로 노래극 '노동의 새벽'을 선보인다.(연출 : 박인배)

이 연극은 시인 박노해의 현장체험을 생생하게 담은 시를 바탕으로 생활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노동자 부부의 이야기와 내일을 건설해가는 이땅의 노동자들의 삶과 애환을 판소리, 한국적 뮤지컬인 노래극으로써 꾸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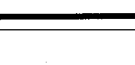
2월1일~2월7일 4시, 7시(첫날 낮공연 없음) 문예회관 대극장

대학주보가 걸어온 길

정론직필 38년

창간호(1955년 5월 12일)

'신흥대학보'라는 제호로 창간, 전 보건소 건물에서 매월 15일과 30일 발행하기 시작했다. 초대 주간 이원우 교수와 편집국장 이규종군(현 정경대교수)과 함께, '하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라는 교훈을 충실히 반영하고, 대학사회의 외전수렴과 대학 안팎의 날카로운 비판기능을 성심성의껏 실현하였다.



제216호(1964년 3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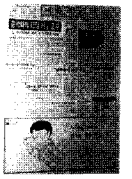
박정희 정권의 폭압 속에서도 한일 회담 굴욕외교 반대 시위기사를 1면 머리기사로 보도하여 불의에 결코 굴복하지 않는 대학신문의 생명력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당시 게재기사에는 "본 대학교의 3천여 경희 학생들은 상호11시부터 4시간여에 걸쳐 평화선 시수들의 구호를 외치며, 학교를 출발…성화대에서다시 연좌"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제683호(1980년 5월 13일)

1979년 10·26시건이 일어난 후 전두환 군부는 정권탈취를 위해 계엄선포및 109일간의 휴교령에도 불구하고, 본사는 경희대를 비롯한 민주화 투쟁의 열기를 담는 보도를 그치지 않았다. 1면에는 대정부 학내점회시위상황을 보도하는 기사의 일부가 삭제되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14개 대학신문의 시국선언문을 게재 언론사수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려 했다.

저희 대학주보사는 지난 '55년 창간 이래로
오직 정론직필의 길만을 걸어왔습니다.
'모든 바람은 대학주보사로부터'라는
캐치프레이드를 내걸고 대학내의 여론수렴 및
올곧은 여론형성을 일으키고,
사회의 모순척결을 지향하고
언론이 통제될 때에도
그 비판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전기자들은
역사와 사회의 폭력 앞에서 굴하지 않았습니다.
여론을 형성하고 모순을 비판하여온 길은
대학주보가 걸어온 38년입니다.
진리의 추구와 사회의 민주화를 위하여
앞으로 걸어온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대 학 주 보 사



제827호(1985년 3월 25일)

본보는 제 827호 3면에 5공정권의 창출비화를 다룬 시리즈인 "유신-이땅의 얼어붙은 역압의 통치문"중 계훈제씨가 쓴 '수권과정의 정당성'문제를 다룬 기사가 예민하고 현실적이고 체제비판적이라는 이유로 문제되어 배포금지를 당하였다. 기자들의 항의와 투쟁 결과 28행이 삭제된 채 발간, 대학주보 기자들의 분노의 공간으로 남아버렸다.

제870호(1986년 11월 3일)

1면 머리기사에 '전대 애학련, 본교생 59명 연행'을 다루어 그해 10월 28일 건국대에서열린 '전국 반외세 반독재 애국학생투쟁연합 발족식'등을 당시 언론통제된 사회격변기 상황을 독자들을 위하여 세밀히 다루어본보기자들의 근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닫힌 사회에서 갇힌 사회언론이 보도할 수 없을 때에도 본보는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제1022호(1993년 5월 10일)

지난 84년 처음 만들어진 이후 사문화된 서울캠퍼스 회칙개정이 전체학생 대표자 총회를 통해 이루어질 때 전학대회참석자들이 과와 단대내에서도 외견수렴 및 토론이되지 않아 그들의 대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1면 머리기사다. 민주적인 절차를 생략한 문제점을 비판하여 대학 안의 여론형성에 기여하였다.